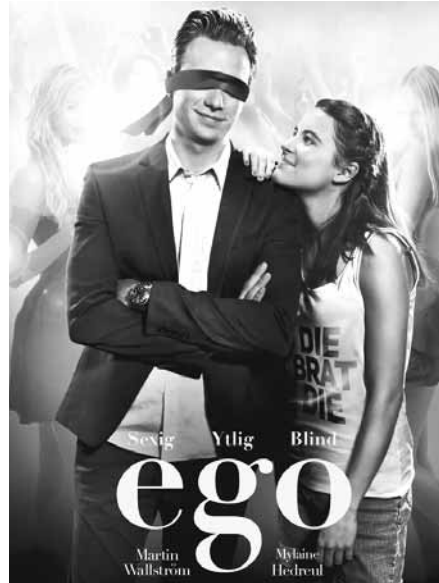


궁금한 스웨덴... 영화도 '선진국'일까

광주극장 7~12일 스웨덴영화제

영화·다큐멘터리 8편 상영
매년 서울·부산 개최 '매진'
무료 관람... 개막식 선물도



‘에고’



‘호텔’



‘동창생’

스웨덴의 다채로운 삶을 생생하게 전하는 다양한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가장 임마르 베리만에서 시작된 스웨덴 영화는 ‘릿미인’, ‘밀레니엄 3부작’,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등 핫한 영화들이 잇따라 발표되며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웨덴의 대표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로, 그녀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녀, 잉그리드 버그만’이 상영되기도 했다.

매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돼 ‘전서 매진’을 기록했던 스웨덴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광주극장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 주제는 ‘새로운 인생(New Life)’이다. 인생의 중대한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독창적인 스타일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려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8편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스웨덴 젊은 스타배우 5명이 그려내는 5개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교차하는 ‘스톡홀름 스토리’다.

또 스웨덴 영화의 젊은 기수 리사 랑세트 감독과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두 번째로 함께 한 강렬한 심리 드라마 ‘호텔’, 스웨덴의 전설적인 뮤지션 호칸 헬스트룀의 음악이 빛어낸 판타스틱 청춘 음악영화 ‘돈 크라이 포 미, 에테보리’, 외모지상주의의 꽃미남이 사고로 시력을 잃은 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로맨틱 코미디 ‘에고’, 자

기 혼자 초대받지 않은 동창회에 나타나 왕따 주동자들과 대면하는 자전적 드라마 ‘동창회’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가장 임마르 베리만 감독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은 ‘베리만 통과하기’가 눈길을 끈다. 베리만 감독의 집이 있는 스웨덴의 포리섬을 찾은 이안 감독을 비롯해 마틴 스크세지 등 세계의 거장 감독과 배우들의 육성을 담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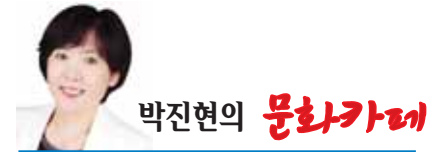
또 몇 년 만에 전화를 걸어 온 옛 연인의 목소리로 되살아나는 파리의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의 프랑스 연인’, 오래 전에 이혼했어야 할 부모에게 마침내 찾아온 이혼과 새 출발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어떤 이혼’ 등이 상영된다.

개막식은 7일 오후 7시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극장에서 열리며 개막식 상영은 7시20분이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티켓은 상영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 현장 배포한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관객 200명에게는 거울을 겸한 스마트폰 거치대, 스웨덴과 한국 국기핀, 책자 ‘여기는 스웨덴’, 영화제 리플렛 등 5가지 물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도 증정한다.

상영일정표는 광주극장(cafe.naver.com/cinomagwangj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2년 전 취재차 상하이로 방문한 기자는 ‘캐타이 극장’이란 오래된 영화관을 발견했다. 갈색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런 외벽과 금박으로 마감된 건물 정면의 ‘CATHAY’ 로고는 주변 건물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영화관이라기 보다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1932년 영·미 영화관으로 세워진 극장은 몇 차례 ‘주인’이 바뀐 끝에 1990년대 초 근대유적지로 지정된 후 다양성(예술)영화관으로 변신했다. 8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말해주듯 지금도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부러운 마음으로

회를 준 곳도 광주극장이었다. 최근 전국 20여 곳의 예술영화관에 비보가 전해졌다. 국내 최초의 단관예술영화 전용극장인 ‘씨네 코드 선재’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최근 1년 사이에 거제 아트시네마를 시작으로 대구 동성 아트홀 등 지역명소로 여겨지던 전용관이 잇따라 운영난 때문에 폐관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동성아트홀은 시민들과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지난 9월 다시 문을 열었다.)

이처럼 예술영화관이 우리 곁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관객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

80살 광주극장의 불안한 미래?

로 ‘캐타이 극장’ 주변을 둘러 보는 동안 광주 총장로 5가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극장이 오버랩됐다.

그리고 보니 ‘캐타이 극장’과 광주극장은 80년이라는 세월과 예술영화관이라는 컨셉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읍이 광주부(府)로 승격하던 1935년 10월1일 문을 연 광주극장은 올해로 80주년을 맞은 광주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추억과 기억의 박제된 공간으로 한 때 문단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난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시네마 테크’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업성 짙은 영화에서 느끼기 힘든 잔잔한 감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흥수 속에서도 예술영화관의 ‘존재권’을 지켜주는 원동력이다. 올해 멀티플렉스에서 외면받은 ‘셜리의 모든 것’, ‘베스트 오퍼’, ‘도화야’, ‘개를 쫓는 완벽한 방법’, ‘위로공단’ 등 색깔있는 다양성 영화를 관람할 기

영진위의 달라진 지원방식도 한몫한다. 기존 예술영화전용관에 운용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극장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영화 유통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간 48편의 예술영화를 선정해 이들 영화에 마케팅 비용과 상영권 확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48편의 예술영화에 포함되지 못하면 ‘영화’도 아닐 뿐 더러 이를 상영하는 영화관에도 지원금을 끊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영진위의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광주극장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80주년 맞은 광주극장의 앞날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멀티플렉스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예술영화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전용관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한다. 이제 예술영화관을 공공재로 인식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도 된 것 같다. <편집부작가·문화전문기자>

존 뉴튼 목사 실화 담은 ‘프리덤’ 광주관객 만난다

광주CBS, 내일 CGV 광주터미널점 시사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한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 기자가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존 뉴튼 목사의 감동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프리덤(FREEDOM·사진)’이 상영된다.

광주CBS(본부장 김갑수)는 “‘프리덤’ 정식 개봉에 앞서 오는 5일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시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CBS는 이날 기독교 목사 등 교계 관계자와 신자, 일반 시민 등 300 명을 초청해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리덤’은 CBS가 추진하는 기독교화사업의 첫 작품이다.

영화는 악독한 노예상인이었던 존 목사가 불멸의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같은 죄인 살리신)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의 일대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피터 쿠센스 감독이 매가폰을 잡았으며 ‘셀마’, ‘제리 맥과이어’ 등에 출연했고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를 비롯해 ‘쇼생크 탈출’의 윌리엄 새틀러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또 ‘아폴로13’ ‘쥬라기공원’ ‘백투더 퓨처’ 등의 딘 컨디가 촬영감독으로 참여했다.



영화 ‘프리덤’은 19일 광주터미널점, 상무점, 첨단점, 용봉점 등 광주지역 4개관을 비롯한 전국 CGV에서 개봉된다. 교회에서 단체로 사전예매를 할 경우 1인당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76-8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 ‘작은도서관 학교’ 3개 강좌 50명씩 모집

광주시 광산구가 작은도서관을 열고 싶지만 현실적 한계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연다.

광산구가 운영 실무와 프로그램 기획, 책을 선별하는 시각을 길러주는 ‘작은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장터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운영실무(9일·배철진 도래샘작은도서관장), 프로그램 기획·운영(11일·김연주 철책작은도서관장), 좋은 책 고르기(13일·신화숙 책들이작은도서관장)를 주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장들이 강사로 나선다.

6일까지 각 강좌당 선착순 50명까지 전화로 접수받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접수 062-960-394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역사·진화 과정 담은 아카이브 조성

올해로 7년째 추진되고 있는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와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 활용가능한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사업단은 출판·영상물, 사진, 작품들을 수집해 분류하고, 일부 자료들에 대

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벽화를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해 아카이브 샘플 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정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는 ‘시민출판상회아카이브 D’(가칭)라고 이름 붙여진 자료관을 조성해 전시·보관하게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504	주택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20736	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1426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3629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 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